

# 창 밖에는 대나무...창 안에는 그림 '무각사 힐링'

유리창 너머, 죽죽 뻗은 대나무 덕에 바깥은 온통 초록빛이다.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탁자 위에 차 한 잔 놓아두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는데, 고개를 반대 쪽으로 돌리면 '그림' 보는 즐거움이 더해진다.

도심 사찰 무각사는 사람들에게 힐링의 순간을 선사해왔다. 사시사철 꽃과 나무가 아름다운 고즈넉한 절집 이곳 저곳은 산책하기 좋고, 다양한 전시를 만나는 로터스 갤러리는 문화 향기가 흐르는 공간이다.

지난 9일 무각사에 또 하나의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기존 북카페가 갤러리로 변신, 모두 세 개의 전시실을 갖춘 미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010년 재불화가 방해자 초대전을 시작으로 문을 연 로터스 갤러리는 2018년 지하 창고를 개조, 대나무숲이 어우러진 두 번째 전시공간을 꾸렸다. 갤러리에서는 중견 작가 기획전, 청년작가 공모전을 꾸준히 열었고,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으로도 쓰였다.

따뜻한 나무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진 새로운 전시공간은 창밖의 대나무숲과 이끼 정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기존 카페가 조금은 번잡스러웠던 데 반해 이곳은 조용히 사색하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무각사는 새로운 공간 조성을 계기로 로터스 갤러리를 '로터스 아트 스페이스' (LOTUS ART SPACE)로 변경했다. 조만간 갤러리 앞 주차장에 연못을 조성해 현재 대웅전 앞 마당에 설치된 재독작가 김현수의 대형 연꽃 조형물 '백련'도 옮겨올 예정이다.

새로운 제 1전시관은 '올해의 작가'처럼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 1년간 작품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2전시관은 대관전, 3전시관은 넓은 규모를 감안해 중견작가 기획전을 열 예정이다. 4월 7일부터 7월 말까지 2~3전시관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사용된다.

제 1전시관 첫 전시로는 무어(無如) 문봉선 작가를 초대했다. 문 작가는 2020년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린 매화전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대웅전 상량 문을 쓰는 등 무각사와도 인연이 있다.

## 북카페, 전시공간으로 변신

1년간 한 작가가 주제별 전시 꾸며 첫 전시는 문봉선 수묵작품전

2~3전시관 대관·중견작가 기획전 4~7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으로

로터스 갤러리 2개 전시관 포함 '로터스 아트 스페이스'로 새 출발

9일 만난 문 작가는 4~5가지 테마로 1년간 전시를 꾸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주제는 '水'다. 마침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 역시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께'여서 일맥상통한다. 대나무 숲에서, 화폭에 흐르는 물을 따라 고요히 생각에 잠기기 좋은 기회다.

"새롭게 문을 여는 공간에서, 그것도 1년간 전시한다는 게 작가로서 큰 기쁨입니다. '물'에 이어 연꽃, 모란, 대지, 바람, 대나무 등을 주제로 수묵작품을 선보이고, 마지막은 서예 '초서'를 전시할 계획이에요. 예향에서 수묵의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어 영광입니다. 후배 작가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작들은 잔잔하고 아련하다. 먹이 종이에 '획' 번지는 느낌 대신, 가래비가 내리듯 스며들어 가는 모습에 한참 동안 눈길이 머문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부드러운 화면, 축축한 물안개 대신 건조함이 느껴지는 안개다. 한지 위 흑과 백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놓인 풍경과 사람들도 인상적이다. 특히 물 위로 긴머리를 늘어뜨린 버드나무 가지의 자연스러운 흔들림은 마음을 일렁이게 한다.

이런 느낌은 한지의 특성을 고려해 붓 대신, 화장



로터스갤러리를 운영해온 도심사찰 무각사는 기존 북카페를 전시공간으로 새단장, 모두 세 개 전시공간을 갖춘 '로터스 아트 스페이스'를 오픈했다.



'水'를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 문봉선 작가.

솔로 작업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는 수묵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가장 평범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다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종이를 다루는 것도 지난한 작업입니다. 화선지 10년, 한지 10년은 다뤄봐야 종이를 안다고 하죠. 거칠어 다루기 힘든 한지를 이길 수 있는 붓을 고민하다 여성들이 쓰는 화장솔로 작업했죠. 결과적으로 물기가 확 번지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장처럼 느



'流水'

릿하게, 퍼져나가며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을 채운 7m 길이의 대작은 어느 겨울, 태풍이 몰려온 고향 제주 앞바다를 그린 작품이다. 거친 붓질과 먹색으로 꿈틀대는 화면은 역동적이다. 먹이 마르기 전 1시간에 만에 퍼포먼스하듯 그려 나간 작품이다. 그는 한라산 중산간에 살았던 어릴 적 기억이 길어올린 수평선과 지평선의 감각, 변화하

는 자연이 전하는 색감 등이 작업 중 불쑥불쑥 튀어 나온다고 말했다. 문 작가는 전시 기간 중 시연 행사 등도 열 계획이다.

홍익대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거쳐 중국남경예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문 작가는 중앙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문봉선의 시화첩 梅(열화당)' 등을 펴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인문학은 다가설수록 멀어져 가는 신기루"

진헌성 광주 진내과 원장, 2년 만에 시 전집 제16권 펴내 1045편 수록 "아흔 둘 인생 돌이켜 보면 어리석음의 반복"

"내 아흔 둘의 평생을 돌이켜 보면 어리석음의 반복였을 뿐 유익한 것거리를 예들 수 없는 수치의 세월뿐이다. 일천한 지식과 지둔한 머리로 인문학까지 뒤지는 사능을 해봤으나 모두가 도모 이해불능했다. 막상 그런가 싶어 다가가면 다가설수록 멀어져가는 신기루의 학문였다."

진헌성 시인(광주 진내과 원장)이 2년 만에 시전집 제 16권 '잘 살고 갑니다' (한림)를 펴냈다.

올해 만 91세인 진 시인은 이번 시전집에 모두 1045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일반적으로 한 권의 시집에 50여 편의 작품이 실리는 것을 감안하면 시집 20권 내지 21권 분량의 작품이 묶였다 할 수 있다.

젊은 시인들도 하기 어려운 작업을 노(老) 시인이 2년에 걸쳐 작품집으로 갈무리했다는 것은 '기적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하루 평균 2편 안팎의 시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야만 묶을 수 있는 분량이다.

작품집에는 대체로 10행 안팎의 간결한 시도

있지만 20~30행 되는 시도 있다. 작품이 많다고 태작이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하나의 시가 지닌 의미와 사유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즉흥적으로 형성화한 작품도 있지만 오랫동안 궁구해 단상을 논리 정연하게 그려낸 작품도 적지 않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인문학의 최고봉은 노자의 도덕경에 있다고 본다. 자연과학적 사고에 인문학적 노자의 사고를 접목하면 과학명명 이든 기계명명이든 우주과학이든 무해의 명명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삼라만상 총회에서/ 사피엔스가 나무 앞서간 다며/ 대표로 코로나를 내세워// 사람들 아귀에 아귀를 물리기로 가결 성공하자// 모두 일어나 상수로 축하파티를/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열게 됐다며// 누구 아니네, 짹짹 입맛을 다신다// 세상 생기고 처음!"

위 시 '입마개'는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 인류학적,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풀이한 작품이다. 일반 시인들이 다뤘던 기존의 '코로나' 작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환기한다. 작금의 시단에서는 볼 수 없는 과학적인 접근과 분석적 사유는



진 시인의 작품 전반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진 시인은 이전 14시집에서는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해 테크놀로지 문명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작품에 담았다. 15시집에선 관념적 에

너지 소모에서 생산적인 에너지 사회조직으로 발전해 인간구조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창작에 투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집에서는 이데올로기 문명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 새 이데올로기가 아닌 테크놀로지 문명으로 초극해 가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시집의 표지 제호를 비롯해 내지 제호는 담담 정명옥의 작품이다. 내지 '무위자연'은 전체 시집의 주제를 집약하고 견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한편 진 시인은 1970년 '현대문학'에 김형승 시인 추천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지금까지 시집 전 16권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녹록지 않은 '섬'... 격동의 현대사 오롯이



국립남도국악원, 17일부터 부산·남원·제주 등 전국 순회공연

국립남도국악원 대표 작품 '섬'을 들고 전국 순회공연에 나선다.

국악원은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북 남원과 제주도 등 전국 각지를 돈다.

'섬'은 살아가지 녹록지 않은 '섬'이란 공간에서 파도와 바람 등 자연과 맞서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가족 이야기'다.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담담하고 진솔하게 그려냈다.

리닝타임 90분간 노래와 연주, 극의 전개와 흐름을 위한 음악적 표현에 있어 남도 지역 향토민요와 음악적 소재를 적극 활용했으며 특히 민속 음악만으로 다양한 음악적 색채감을 구현해 예술적 성숙을 이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진도에서 처음 선보인 뒤 서울에서 초청공연을 열었고 관객과 예술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작품의 연출은 김태욱 2018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총감독이 맡았으며 뮤지컬 '라디오 스타'의 각본과 국립정동극장의 '소춘대유희' 극장을 맡은 강보람 작가가 극작에 참여했다. 음악감독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김영길이가 함께했다.

이번 공연의 막은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17일(오후 7시 30분), 18일(오후 5시) 연다. 내달 3일(오후 7시 30분)과 4일(오후 3시)에는 전북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같은 달 26일(오후 2시, 오후 7시)에는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이 열린다. 문의 061-540-4034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출생부터 첫 돌까지...국악으로 만나는 육아 애니

전남도립국악단 '전래 영아 놀이노래' 시리즈 16일 공개



전남도립국악단이 16일 영유아를 위한 애니메이션 '전래 영아 놀이노래' 시리즈를 선보인다.

'전래 영아 놀이노래'는 막 태어난 아기가 첫 돌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북돋는 노래로 '모두 다 꽃이야'를 작곡한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놀이노래를 기반으로 새롭게 작사·작곡한 것이다. 이 곡에 단원들의 노래와 연주를 덧입혔다.

전래 영아 놀이노래의 시리즈 1탄은 '두꺼비보 다 잘도 긴다'로 막 기어다니다가 시작한 아기의 모습을 그린 곡이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노랫말, 동물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의

조합을 엮을 수 있다.

이어 23일 공개 예정인 2탄 '질라래비 훨훨'은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모습을 첫 비행을 시작한 새들에 빗대어 만든 노래로, 새처럼 양팔을 벌려 춤을 추듯 '질라래비 훨훨'하며 건강하게 자라 마 음껏 꿈을 펼치길 바라는 어른들의 애뜻하고 다사로운 정서가 깊게 배어있는 작품이다.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영아 놀이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엄마,아빠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이라며 "이번 '전래 영아 놀이노래'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전국 엄마,아빠들에게 건강한 예술적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전남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온라인 국악 교육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겨울 국악 동요'를 발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운영자문위원 모집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자문위원은 2년간 회관과 단체 운영에 대한 심의와 공연장 사용허가, 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 심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달 22일까지 총 11명을 모집하며 음악(4명), 무용(2명), 국악(3명), 뮤지컬·연극·문화기획(2명)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자격 요건으로는 ▲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중

사 ▲광주 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전문가로 활동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재직 경력 등이 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이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1부다. 제출은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heosj07@korea.kr) 등으로 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문의 062-613-8352. /김다인 기자 kdi@